

# “도시재생사업, 전략적 계획 수립 필요”

## 광주전남연구원, 새정부 정책 방향 맞춘 사업계획 제언 지역 자산 연계 차별화된 특성 반영 경제 거점 조성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새롭게 바뀐 도시 재생정책을 토대로 완성도 높은 사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의 차별화된 특성을 반영한 경제 거점을 조성하고 민·관 협력 구조의 사업을 확산하는 등 완성도 높은 사업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22일 광주·전남 정

책Brief(브리프) ‘2022년 도시재생사업 계획수립 시 고려사항’을 통해 기존 노후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지 정비 중심에서 나아가 지역산업 특화·강화 기능을 수행할 거점공간 조성, 실행 가능한 사업 중심의 전략적 계획 수립을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새 정부 도시재생사업 추진 방향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새 정부는 기존 5개 사업

유형을 경제 재생과 지역 특화 재생 등 2개 유형으로 통·폐합하고 완성도 높은 사업 지원과 쇠퇴한 원도심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혁신지구 조성, 지역 별 고유자원을 활용한 지역 특화 재생을 추진한다.

곽행구·최우람·이진 연구진은 새정부 도시재생정책의 방향을 ‘선택과 집중’, 핵심 키워드는 ‘단순화’와 ‘실질적인 사업’으로 분석했으며 지역 고유자산

을 연계한 특화산업재생 관점의 경제거점 조성,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완성도가 높은 사업이 선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진은 “성과연동형 예산 체계 도입에 따라 기존 사업을 철저히 관리하고 국토부·지원기구의 사전 컨설팅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S/W사업은 마중물 사업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됐으나 지역 주민 의견 수렴과 협력 체계

구체성, 조직 구성, 거버넌스 운영 등이 평가 항목·기준에 반영되므로 S/W사업 계획을 과적 중심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연구진은 “정부 부처 간 연계사업 발굴 등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체계화 방안 마련을 통해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의 자체 기능을 강화하고 경제 거점 기능 확산에 대한 가능성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곽행구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생활SOC 공급과 운영을 위한 계획’ 단계에서 해당 지역만이 가진 특별한 스토리에 기반한 ‘실질적이며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 중심의 계획이 이뤄져야 한다”며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지역특화산업 발굴과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A부터 Z까지의 높은 완성도, 평가 항목·기준을 갖춰 전략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은진기자

# 광주시 산하·유관 기관장 후임 인선 ‘촉각’

## 공석·임기 만료·사임 등 총 9곳... 姜시장 “적재적소” 강조

광주시가 산하·유관 기관장들의 잇따른 임기 만료에 따라 후임 인선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광주시의 경우 선거 캠프 출신들이 주요 보직에 임명되는 ‘보은 인사’ 논란이 적지 않았던 만큼 ‘적재적소’를 강조한 강기정 시장의 인선 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 기관장이 공석이거나 올해 하반기 임기 만료를 앞둔 시 산하기관과 유관기관은 ▲광주환경공단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여성가족재단 ▲광주관광재단 ▲한국광기술원 ▲한국광산업진흥회 ▲광주교통문화연수원 ▲광주시립미술관 등 총 9곳이다.

먼저 광주환경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최근 이사장 후보를 공모원 출신 1명, 기업 출신 1명 등 2명으로 압축해 오는 29일 면접을 진행한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고득점 순으로 추천한 복수 후보 중 강 시장이 최종 1명을 인사청문 대상자로 지명한다. 후보자로 선정되면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예정이다.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광주시립미술관장은 오는 29일부터 9월2일까지 공모 지원서를 접수한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의 경우 김미경 대표이사가 오는 10월13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대학 교수로 복귀하기 위해 사의를 표

명, 후임 대표 선임 절차가 앞당겨졌다.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한국광기술원 원장, 전임자 퇴임으로 공석인 한국광산업진흥회 상근 부회장도 후임 인선 절차에 들어갔다.

공석인 광주교통문화연수원 원장을 공모 중이다.

앞서 강기정 시장은 지난달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사는 적재적소 같다. 유능함과 무능함, 전문성과 비전문성을 나누는 길은 참으로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저도 적극 추천할 것이다. 검증할 필요성이 있어 장·차관 등 국무위원 인사 청문회 검증 리스트를 보고 부족한 부분을 반영해 출자·출연기관의 조례나 정관을 보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백선강기자



전남도농업박물관이 지난 6월 영암 삼호읍 농업테마공원 체험장에 색깔별로 '전남 방문의 해' 문구를 새긴 논 그림을 연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논 그림은 벼이삭이 패기 전인 8월에 가장 선명하다. <전남도제공>

# 광주시·전남도, 추석 대비 안전 강화

## 도시철도 공사 현장·다중이용시설 등 특별 점검

광주시와 전남도가 추석에 대비해 지하철 공사 현장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22일 “추석을 맞아 도시철도 2호선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가 진행 중인 유덕동 차량기지 및 본선(시정-광주역) 6개 공구 등 7곳에 대해 26일과 29-30일까지 3일 동안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안전점검에서는 추석 연휴기간 외부인의 건설현장 내 출입 차단을 위한 대책, 차량·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교통시설물 정비 상태,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교통처리대책·이행 실태, 건설장비 등의 연휴기간 안전조치계획, 공사장 주변 환경경비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하도록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이 있는 사항은 현장에서 긴급 안전조치 후 소관부서를 통해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추석 연휴 전까지 건설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건설현장을 수시 순찰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가 일시 중지되는 추석 연휴기간에는 공사 관련 안전사고나 민원 발생 시 신속한 처리를 위해 공사 구간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전남도도 오는 31일까지 10일간 전통시장, 버스터미널, 철도역 등 107개 다중이용시설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전통시장 46곳, 버스터미널·철도역 15곳, 레저시설 19곳, 전시관

14곳, 유원지 11곳, 영화관 2곳이다. 건축, 전기, 소방, 가스, 승강기 등 5개 분야로 나눠 점검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시설물 주요 구조부 균열 누수 등 결함 상태 ▲소방·전기·가스시설 관리실태 ▲비상구·복도·계단·승강기 등 피난통로 상시 확보 여부 ▲시설안전기준 등 법적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전남도는 또 안전신고 활성화를 통한 안전문화 조기 정착을 위해 도민이 일상생활 주변의 위험요인을 신고하면 행정기관이 현장을 확인해 제거하는 안전신문고 제도 홍보도 함께 추진, 도민 생활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즉시 시정이 어려우면 명절 이전까지 보수·정비를 마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면 신속한 위험구역 설정과 함께 사용금지, 보수보강, 정밀안전진단 실시는 물론, 위험 여부에 따라 과태료,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도 할 방침이다. /김재정·백선강기자

# ‘전남 방문의 해’ 대형 논그림 눈길

## 농업박물관, GPS 활용 벼아트

전남도농업박물관 농업테마공원에 색깔별로 '전남 방문의 해' 대형 논그림이 등장해 관람객의 관심을 끌고 있다.

농업박물관은 지난 6월 영암 삼호읍 농업테마공원 체험장에 모네기를 하면서 색깔별로 '전남 방문의 해' 문구를 새겨 넣었다.

일반 벼는 초록색 도화지, 자색 벼는 물감 역할을 해 벼가 자라면서 문구가 뚜렷이 나타나는 원리를 이용했다. 벼이삭이 패기 전 8월 현재가 논 그림이 가장 선명하고 아름다울 때다.

논 그림은 2022-2023년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청정·힐링·생명의 땅’ 전남 관광이 활성화되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

농업박물관은 2015년부터 전남도정 방침의 핵심 주제 문구를 새긴 논 그림을 연출했다. 지난해까지는 전문업체에 용역을 맡겨 벼아트 작업을 했으나 올해는 박물관 직원들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해 직접 논그림을 연출,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임영호 관장은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전남도정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논 그림을 연출했다”며 “다양한 농업 자원을 활용한 경관 농업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 “식품위생업소 저리 융자 신청하세요”

## 도, 연 1% 시설개선 등 지원

전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깨끗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 1%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식품위생업소 융자 지원사업은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개선·운영 자금을 전남도가 저리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융자 대상은 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점영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 제조·판매업소로 전남에는 4만9천551개소가 있다.

융자 금리는 연 1% 고정금리며 융자 비율은 소액 자금의 80%까지 가능하다.

융자 한도액은 시설 개선의 경우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업소·인증 희망업소 4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원 ▲식품점영업소 5천만원(화장실은 1천만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 지정 희망업소 3천만원이다. 운영 자금은 1천만원까지 가능하다.

융자를 바라는 영업자는 광주은행이나 농협중앙회 지점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시·군 위생부서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김재정기자

시대가 바라는 안전한 에너지

가족의 약속을 담아서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서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_\_ 서부발전이  
당신 곁에 있습니다

시대가 바라는 안전한 에너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친환경 에너지 글로벌리더

wp 한국서부발전